

산림치유관광 플랫폼 조성 박차

무주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사업 내용 공유·의견 나눠

무주군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 는 산림치유관광 공동체 플랫폼을 조 성하는 무주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 진 동력을 마련했다.

무주군은 12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횡인홍 군수와 이해양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무주군청 부서장들과 무주군 의회 의원 그리고 무주군 농촌신활력 플러스 추진단과 액션그룹 참가자 등 7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무주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비롯한 주요 사업, 액션그룹 육성체계, 비즈니스 모델 설명, 연계 및 후속 사업, 유류시설 활용 방안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질의 응답의 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무주군은 이 자리에서 취임된 의견 등을 반영해 농림부에 승인요청을 할 방침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은 승인 완료 후 4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횡인홍 무주군수는 "신 활력플러스사업은 결국 무주를 무주답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용역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가는데 필요한 탄탄한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자원과 기존 농촌개발사업에서의



무주군은 12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횡인홍 군수와 이해양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무주군청 부서장들과 무주군의회 의원 그리고 무주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무주군은 이 자리에서 취임된 의견 등을 반영해 농림부에 승인요청을 할 방침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은 승인 완료 후 4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횡인홍 무주군수는 "신 활력플러스사업은 결국 무주를 무주답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용역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가는데 필요한 탄탄한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자원과 기존 농촌개발사업에서의

유무형 지원을 활용하고 융합하는 주민주도의 공동체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되리라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무주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공감파인에서 연구를 맡아 2022년 9월부터 진행해 왔다.

무주신활력플러스사업(산림치유 관광공동체 플랫폼)은 궁극적으로 유유자적 쉼(休)을 주는 산림자유 힐링도시 무주를 실현한다는 것으로 민간 주도의 저탄소 사회적 경제시스템과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의 토대가 된다는

/무주=전문선 기자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은 실천면 청량리에 거점 공간을 두고 무주군 일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휴먼웨어 즉,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설과 조직(액션그룹)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액션그룹은 5명 이상의 주민이 하나의 목표를 가진 조직을 만들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경제활성화와 공익창출에 기여하는 활동 조직을 말한다. 현재 19개 단체가 신청했으며 2024년에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시민대학 시범사업 진안캠퍼스 개강

진안군, 전주대·비전대와 3개 교육과정 추진

진안군은 12일 전북시민대학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돼 9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다양한 주제와 분야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전주대·비전대 학교와 3개의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로컬푸드와 맛남! 진안 블록(진안군 특화음식 개발 수업), 드론영상 콘텐츠 제작; 골든타임(응급처치 교육)이고 운영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이다. 교육장소는 진안 시흥필달센터 및 진안 공설운동장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골든타임'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진행하며 종강 시까지 수시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진안군은 12월경 3개 프로그램 운영 결과 등에 대해 공유하는 성과공유회



진안 블록 수업 사진

도 개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 평생교육 재구조화 및 고품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군민의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 진안군 시민대학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홍삼축제서 문화누리카드 사용하세요"

진안군은 문화누리카드로 다채로운 축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홍삼축제기간 22~24일까지 축제개행점을 운영한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문화행유 증진을 위해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 11만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홍삼축제장 종합안내소에서 축제상품권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부스에서 직접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홍삼축제장에서는 진안의 특산품인 홍삼을 비롯해 베섯, 사과 등 지역 농산물과 문화체험 등을 문화누리카드로 즐길 수 있으며, 축제에 참여하지 못해도 축제 기간 동안 진안군 직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진안고원몰, <https://jinangowonmall.com>)을 통해 진안홍삼을 구입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농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완료한다

정이다.

선불카드 사용은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장수군 지역 내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통업소는 제외된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가당 60만원씩으로, 총 3억원 규모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최훈식 군수는 "연이은 냉해, 호우,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민 공익수당은 지역경제에 새로운 힘을 더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농업·농촌 환경 협약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5,251농가의 신청을 받았고 자체 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170농가를 제외하고 총 5,081농가를 지급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올해에도 농민들의 희의를 위해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되며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부될 예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환경개선부담금 10월 4일까지 납부하세요"

장수군이 2023년 2기분 납부 대상 건에 대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분에 근거해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후불제 방식이다.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은행CD/ATM기 △인터넷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횡현철 재무과장은 "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꼬 남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맛 좋은 우리 사과 '아리수' 현장평가회 가져

무주군은 지난 11일 안성면 덕신리에서 '사과 우리 품종 '아리수'에 대한 현장 평가회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주최한 이날 평가회는 '아리수' 품종의 특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시장 남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아리수 품종 특성 설명 및 재배 애로 사항 해결기술 공유, 아리수 시식, 재배농가 사례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재배 농가를 비롯해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등 10개 시군농업기술센터 과수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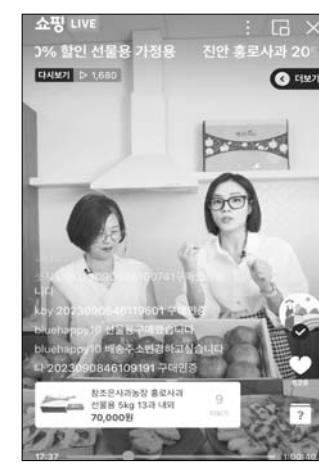
농업인 이보상 씨(65세, 안성면 수락마을)는 "아리수 품종이 확실히 맛이 있다"라고 밝혔다.

있다"라며 "먹어본 사람들이 다시 찾는 품종이라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도 관심이 가지고 기대가 되는 품종"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리수' 품종의 사과는 농촌 진흥청이 개발한 것으로 당산비(당도 15Bx, 산도 0.33%)와 식감이 뛰어나고 맛도 좋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은 "무주에서는 전체 500여 농가가 508ha 규모에서 흥로, 후지, 아리수 품종의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며 "무주군에서는 사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품종의 다양화 등을 모색하고 있고 2014년부터 아리수를 비롯한 썬마킹 등 국내 육성 품종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명품사과 라이브커머스 사진

지널리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진안고원 물은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추석 맞이 최대 40% 할인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있다"라며 "먹어본 사람들이 다시 찾는 품종이라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도 관심이 가지고 기대가 되는 품종"이라고 전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주최한 이날 평가회는 '아리수' 품종의 특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시장 남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아리수 품종 특성 설명 및 재배 애로 사항 해결기술 공유, 아리수 시식, 재배농가 사례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재배 농가를 비롯해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등 10개 시군농업기술센터 과수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농업인 이보상 씨(65세, 안성면 수락마을)는 "아리수 품종이 확실히 맛이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특히 진안군에서 건설 진행 중 이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건축 관련 사업은 39건으로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갑 의원은 "효율적인 농산물유통기금 운영과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에 임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히며 "문화콘텐츠 시대라고 하는 21세기에 역사문화 유산들을 보존하고 관리·개발하여 민족역사가 살아있는 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군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이어서 보전되는 품목도 인삼, 사과, 건고추, 수박뿐만 아니라 전라지역과 육성품목으로 확대해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군 자체재원 확보, 사업 효율적 추진해야

김명갑 진안군의원

특히 진안군에서 건설 진행 중 이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건축 관련 사업들이 많으므로 향후 준공 후 적

영의 경우 운행비 및 인건비 증가, 위탁의 경우 위탁료 증가로 이어질 것인데 향후 진안군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시설들이 준공된 이후 운영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김 의원은 "최근 국가적으로 예산 지출 증가율을 낮추고 교부세를 감소시키는 등 긴축재정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군 자체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군 재정을 건실하게 꾸려가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진 진안군의원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 이명진 의원은 12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마을에 신속한 보급 필요'와 상수도가 보급되었지만 사용하지 않는 마을에 대한 사용 권고 및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 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진안군 상수도 운용 현황을 살펴보며 현재 보급률을 98퍼센트에 달하지만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마을 중 수요요구가 있는 마을에 신속한 보급이 필요하다며 지역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수도 보급된 마을 중 계곡수

신속한 상수도 보급, 군민 불편 최소화

이명진 진안군의원

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용권고를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진 의원은 "상수도에 보급된 마을에 보급을 신속히 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며 "상수도 보급된 마을 중 사용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는 적극 사용 독려를 해 많은 예산이 투여된 상수도 시설이 잘 쓰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